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이 효 성 의원



“병설유치원 적절한 교사 대 원아 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재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문·일답)입니다.

이 효 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 대화, 법1·2 지역구 이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 개발과 행복한 학교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설유치원의 교사 수 대비 원아 수의 적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영재교육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 운영되는 대전교육 현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한몸교회 다니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효성 의원 저도 거기 지역구라 자주 갑니다.

먼저, 병설유치원 원아의 교육 및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적절한 교사 대 원아 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시·도 간의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은 지역 간 편차가 크고 교육감이 정한 기준은 3세 반에서 5세 반까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대전의 경우도 2022년 학급당 원아 배치기준을 보면 만 3세 학급 15명, 만 4세 학급 22명, 만 5세 학급 26명, 혼합학급 22명, 특수학급 4명이 기준입니다.

학급당 유아 수는 학습환경 및 여건의 주요지표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유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위해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영향 속에서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등교수업 측면에서 핵심 변수가 되면서 적정한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의 병설유치원 92개 중 교원 1인당 원아 수가 가장 많은 곳은 22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3명입니다.

이렇듯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1인당 원아 수가 7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학급당 원아 수 기준이 많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2년도 보육사업 안내에는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으로 반별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 기준으로 유치원보다 만 4세는 2명, 만 5세는 6명이 적은 기준입니다.

교사 대 유아의 비율에 따라 교사와 원아 간의 상호작용의 횟수와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발달 초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은 원아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지원할 수 없으며 구조적으로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조건입니다.

지역편차를 줄이고 질 높은 유아 공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유치원 원아들이 질 높은 교육과 보살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 개선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효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유아의 유치원 교육은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의 뿌리가 바로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이 잘되어야만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개인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잘 살펴보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지도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치원의 원아 수에 해당하는 교사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내실 있고 다양한 유치원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이효성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학생 수 조정을 교육감님께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건지, 하신다면 지금 대전의 적정 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학급당 유아 수를 보면, 사실 우리 대전교육청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전교육청의 학급당 인원수는 타 광역시 평균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이효성 의원** 지금 많게는 교사 1명이 22명을 지도하고 적게는 3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아 수와 관련해서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예를 들면 원아 수가 3명 정도 되는 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합반도 편성하고 유치원별로 연계교육을 한다든지 통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왜냐하면 원아 수를 적정 수로 해야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는 교육도 하지만 주로 놀이교육,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회성이나 인성이 발달하고 성격이 성장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학생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회에서도 아마 유아 수 감축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14명 정도의 유아 수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인성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적정한 유아 수를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이효성 의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질 제고 등 대책을 강구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유치원이 되도록 더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무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의 특성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등 선호성을 높이는 등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등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립유치원을 병설유치원보다 더 선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 관내 병설유치원의 유아 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도에 관련이 있겠지요, 그리고 유아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원인으로는 저출산이라든지 또 우리 대전은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있고 신도시 재개발로 인해서 서부 관내 집중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학급 대다수가 동부 관내 유치원으로 인구수가 아주 급감하고 있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입니다.

이런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의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서 대전형 병설유치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특색에 적합한,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맞춤 테마형 유치원 운영이라든지 연령별 학급 운영 또 교육환경 개선 지원, 통학차량 지원, 가장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돌봄시간 확대 운영,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해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유치원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청이 이렇게 유치원의 모든 것을 개선하게 되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아주 상당히 잘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효성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서는 병설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병설유치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지역사회 시민들의 어떤 관점에 달라지겠지만, 제가 유치원도 여러 차례 나가봤는데 병설유치원이 참 내부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재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무한잠재력 개발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2022년 현재 초·중·고 84개 기관 160개 학급 2,665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영재교육 수혜율을 보면 2022년 대상자 2,665명은 전체 학생 15만 6,416명의 1.7% 수준입니다.

2021년 또한 2,821명으로 1.77%, 2020년에는 3,069명으로 1.8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사회통합전형 영재교육 대상자는 2020년 105명에서 2021년 123명, 2022년 125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비율 또한 3.42%, 4.36%, 4.69%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영재교육 대상자를 보면 2020년 3,069명, 2021년 2,821명, 2022년 2,665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재교육이 매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50개 기관 68학급을 운영하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에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이 축소의 한 원인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영재교육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영재학습에 대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지원 자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매년 영재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축소는 현 상황에 대해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질문과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영재교육 축소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전에는 학생부에 영재교육을 받으면 그 실적이 대입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영재교육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단위학교 영재학급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면수업 시에는 확진에 대한 그런 기피성이 있고 해서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영재교육이 축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문제로 영재학급이 많이 개설되지 않은 동부지역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6학급 개설하였고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을 확대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익자부담 그것을 2023학년도부터는, 내년이지요.

2023학년도부터는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비 및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의 일부 수익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또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지요.

그래서 영재 지도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향상을 위해서 우수교사 대상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재교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의원**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할 때 교육청의 영재교육 비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 잠깐 제가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재교육 비율은 영재학교 및 과학고 또 과학기술부 소속의 영재교육원까지 모두 포함한 데이터로 나타나는데요.

대전은 2.21%, 전국 평균은 1.49% 그리고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은 1.98%로 영재교육

비율이 전국 평균과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말씀했던 대로 좋습니다.

대학도 많이 있고 또 대덕연구개발특구도 있고 해서 거기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하다 보니깐 그래도 타 시·도나 타 광역시보다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 **이효성 의원** 아까 대전과학고를 말씀하셨는데 대전과학고에 현재 대전 거주 학생들의 진학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사실 다 아시다시피 대전과학고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영재학교인 대전과학고의 지역별 재학생 현황은 대전지역이 22.7%, 수도권이 70.5% 그리고 기타 지역 6.8%입니다.

그런데 올해 실시된 2023학년도 신입생 선발결과 대전 학생의 비율은 33.3%, 수도권은 55.2%, 기타 지역 11.5%입니다.

이 결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 입시제도를 2021학년도부터 시행했어요.

2021학년도에 뭐를 뒀냐면 지역인재 우선선발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행한 지역인재 우선선발의 영향으로 수도권 학생의 비율은 감소하고 대전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지역인재 우선선발제도와 같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대전 학생들이 더 많이 영재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제도권에 대해서만, 어떤 법적 퍼센티지만 가지고서 교육감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지금 대전과학고에 대전의 학생들이 최소한 50% 이상은 진학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말씀드렸는데 과학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대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지역 단위 모집 학생을 34명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권, 수도권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대로 과학 영재를,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전권 학생들이 대전과학고를 많이 가는 이유가 지역이라는 면도 있지만 대전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 중관춘, 일본 츠쿠바라든지 러시아 아카뎬고로독 같은 그러한 연구개발단지에 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과학고는 제가 볼 때에도 대전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역인재 우선선발전형 이런 것을 더 확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선발은 사실은 과학고등학교 입시가 1차, 2차, 3차 전형을 하는데 2차까지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뽑고 지역인재 선발전형에서 합격된 아이들은 3차 전형은 면제하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효성 의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영재교육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사범고시라도 있어서 개천에서 용이라도 났는데 지금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 교육감께서는 과감하게 투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영재교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학기술 영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발전과 모든 사회·국가의 발전 원동력은, 산업발전, 모든 예술발전 기본은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영재에 대한 우리나라의 콘셉트,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에서 영어, 수학만 잘하고 뭐하면 그게 굉장히 영재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술을 잘하는 아이 또 체육을 잘하는 아이, 예를 들어 체육을 잘하는 아이들, 민첩성 있는 애는 축구에 영재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근력이 좋은 아이들은 역도에 영재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영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편·기본적인 교육, 기본적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적성과 소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기르는 쪽으로 영재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사실은 영재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외국어고등학교도 생각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도 사실 영재교육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어를 강화해서 세계적인 시민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외국어 영재교육이 되겠지요, 한 예를 들면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영재교육을 검토해서 앞으로 영재교육을 더 강화하고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의원** 그러면 지금 동부와 서부를 나뉘었을 때 투자 비율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늘 우리 대전교육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동·서부 교육격차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부지역에 있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의 특성화를 이뤄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도 더 많이 하고 또 우수한 교사 배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의원**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것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이효성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설유치원은 저는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간단하게만 제가, 사실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유보통합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정부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 문제를 고려하고 아이들 교육적인 차원을 생각해서 유치원 교육도 전면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으로 모든 것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유치원 교육도 전면 무상교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의원** 현재는 무상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지요.

❖ **이효성 의원**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을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은 시·도별로 같이 이렇게 상황이 다릅니다.

도농지역이 다르고 도시지역이 다르고 해서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의 교육감님 생각으로는 예입니까, 아입니까?

이것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여기서 딱 그 말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예입니까, 아입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현재 그러니까…….

❖ **이효성 의원** 예입니까, 아입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 **이효성 의원** 예.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저는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 **이효성 의원** 예입니까, 아닙니까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은 그렇게 YES 아니면 NO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 **이효성 의원** 현재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하면 공인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논란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 **이효성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